제1강 불교란 무엇인가

(1교시) J_stJo01_030901_01

◎ 불교는 종교인가, 철학인가?

불교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불교가 종교인지 철학인지의 이분법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 불교는 종교다!?

불교는 종교의 구성요건인 교단, 교리, 그리고 사제와 신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성의 활동 영역보다는 깨달음, 해탈, 열반 등 초월적이고 영적인 영역(spiritual)을 다루고 있다.

◎ 불교는 철학이다!?

일반 종교의 개념과 달리 불교는 '신'보다는 '개인의 수행'을 추구한다.

또 서양인들의 Buddism이라는 표기는 불교를 하나의 사상, 이성의 활동(nationality), 즉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불교는 종교와 철학 두 가지 범주에 모두 포함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종교와 철학

종교와 철학 두 개념은 모두 서구 전통에 있어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

그러므로 서양에서 서양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종교나 철학이라는 범주에, 서양이 아닌 인도에서 발생하고 확장된 불교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우리에게는 불교의 敎 라는 글자에서 보듯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더욱 크다. 즉 서양의 종교/철학이라는 구분은 우리와 완전한 합일을 이루지 않는다.

ex) 동양의 '국'과 서양의 'soup', '김치'와 '샐러드'가 비슷하지만 엄밀히 다른 것이어서 서로 완전히 소통될 수 없는 것과 같음.

즉, 애초에 불교가 철학이냐? 종교냐? 하는 질문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석가모니 열반도

불교의 창시자, 붓다는?

본명 고타마 싯다르타. 인도 카필라성 출생. 석가모니(釋迦牟尼) ·석가문(釋迦文) 등으로도 음사하며, 능인적묵(能仁寂默)으로 번역된다. 보통 석존(釋尊) ·부처님이라고도 존칭한다. 석가(kya)는 민족의 명칭이고 모니(muni)는 성자라는 의미로, 석가모니라 함은 석가족(族) 출신의 성자라는 뜻이 본래의 성은 고타마(Gotama:瞿曇), 이름은 싯다르타(Siddhrtha:悉達多)인데, 후에 깨달음을 얻어 붓다(Buddha:佛陀)라 불리게 되었다. 또한 사찰이나 신도들 사이에서는 진리의 체현자(體現者)라는 의미의 여래(如來:Tathgata), 존칭으로서의 세존(世尊:Bhagavat) ·석존(釋尊) 등으로도 불린다.

(2교시) J_stJo01_030901_02

◎ 불교에서의 존재와 경험

데카르트: "I think, therefore I am" - 근대 철학의 기본이 되는 서양식 사고관.

'나'라는 불변하는 주체가(I) 경험을 하는 것(do).

그러나 불교는 이 때의 '나'를 부정한다.

데카르트의 명제를 불교식으로 전환하면 "Thinking is me"

즉, 경험과 존재는 같은 것이며, 고정불변의 '나'는 없다.

◎ 불교의 출발점

'나'는 관념일 뿐이라는 **붓다의 깨달음, 무아(無我)의 경험에서 불교는 시작**되었다.

공자 "배우고 나서야 부족함을 깨닫는다"

불교의 사고관 “잠에서 깨어난 후 꿈이었음을 안다”, “일체개고-모든 것이 고통”

불교에 있어 모든 것은 나/나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 = 신이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

◎ 부처의 세계관 - 모든 것은 무상하다

“제자들이여, 나의 열반은 이제 가까이 와 있다. 이별은 멀지 않다. 그러나 헛되이 슬퍼하지 말지어다. 세상은 무상하며, 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느니라. 지금 나의 한 몸이 다 된 수레처럼 허물어지는 것도 이 무상의 도리를 몸소 나타내기 위해서니라.
부질없이 슬퍼하지 말고, 이 무상의 도리에 놀라고, 인생의 참모습에 눈을 떠야 한다. 변화하는 것을 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니라. 번뇌의 악마는 항상 그대들 마음의 틈을 노려서 너희들을 쓰러뜨리려 하고 있다. 만약 그대의 방에 무서운 독사가 살고 있다면 그 독사를 내쫓지 않는 한 그 방에서 편안히 잠잘 수는 없을 것이니라. 번뇌의 악마는 내쫓아야 한다. 번뇌의 독사도 내쫓아야 한다. 그대들은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하느니라.”

-부처 최후의 가르침

◎ 십이처설

십이처설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이며 모든 존재에 대한 일종의 분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는 일월성신을 비롯해서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삼라만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열두 가지에 모두 포섭된다는 불교의 사상이다.
그 열두가지를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뜻을 취하여 처(處)라 하고 이 교설을
십이처설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십이처의 구성

눈(眼), 귀(耳), 코(鼻), 혀(舌), 몸(身), 의지(意) 의 여섯 개의 인식기관
색(色), 소리(聲), 냄새(香), 맛(味), 촉감(觸), 법(法) 의 여섯 개의 인식대상

<참고자료-학생 프로토콜>

(1)

제1강 불교란 무엇인가?

영어영문학과 98학번 C 학생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를 정의내리는 과정에서 불교가 철학이냐? 종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됨.
즉, 종교가 아닌 철학 / 철학이 아닌 종교라는 이분법 정의의 어려움을 겪음

*Buddism≠불교?
서양인들이 말하는 buddism과 불교는 어떻게 다른가?
-ism은 하나의 사상, 이데올로기를 뜻함. 이것은 불교를 하나의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들이 말하는 불교佛敎의 敎는 말 그대로 하나의 '가르침'을 말하는 범박한 표현.
따라서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이 말하는 불교는 다름(예: 국과 soup가 비슷하지만 형태와 먹는 방식이 달라서 완전히 같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서양인들의 관점에서 불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종교의 조건은 'God'의 유무-불교에서는 유일신이 존재하지 않음.
*서양인들의 관점에서 불교가 철학이 아닌 이유
서양인들에게 철학은 이성(nationality)의 활동 영역, 그러나 불교는 영적인 영역(spiritual)을 다루고 있음.

☞불교가 철학이냐? 종교냐 하는 질문은 잘못된 것일 수 있음. 불교는 서양의 종교/철학과는 다른 카테고리에 속해 있음.

*불교에서의 존재와 경험의 의미
데카르트- "I think, therefore I am"
서양의 근대적인 사고관의 대명제, 즉 '나'라는 존재가 경험을 하는 것.
인도 유럽어에는 주어인 I(동작의 주체)가 있어야 함.
데카르트의 명제를 불교적으로 전환하면

“Thinking is me"가 됨. 즉 경험과 존재가 다르지 않다는 인식, 불변의 ‘나’를 부정
‘이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라는 우리말의 어법도 이러한 맥락으로서의 사유의 예로 볼 수 있음.

*불교/불교학의 시작
붓다의 깨달음에서 시작-무아의 경험
“배우고 나서야 부족함을 깨닫는다”는 공자의 말은
“잠에서 깨어난 후 꿈이었음을 안다”는 불교의 사고관과 유사
*일체개고-“모든 것은 고통이다”라는 불교의 중심적인 생각은 깨달음 이후에 나온 말임.
즉 이 말을 말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불교를 단순히 염세적인 사상을 가진 종교로 오해할 여지가 있음. 그러나 이 말은 불교라는 것이 나/나의 경험(예:불교에서의 12처[6근,6경]과 같은 감각과 인지의 기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상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음.
수업이후에 드는 의문점과 더 논의되기 원하는 사항
불교를 받아들이는 서양식의 사고관이 불교의 이해에 장애물이 되기만 할 뿐인 것인가?
서양인에게 보이는 불교의 새로운 면이 불교라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환기 시켜주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 우리가 국을 먹으면서도 soup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상호관련성과 차이점을 알면서 먹는다면, 그것이 국의 존재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국’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던져줄 수 있지 않은가?

(2)

제1강 불교란 무엇인가?

철학과 98학번 J 학생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되고;
이것이 일어남으로부터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생겨나지 않고;
이것이 정지하면 저것도 그친다.

위의 문구는 불교의 연기, 혹은 인과율에 대해서 붓다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불교란 무엇인가를 규정한다면 인과율과 그것의 인식, 경험, 그리고 초월은 거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I. 개념 규정의 두 가지

1. 긍정적 속성으로 정의

어떤 개념을 규정하기 위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개념이 가진 성질, 특성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조합함으로 개념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소방서'라는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화재 예방.진압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행정기관.
구분 : 일선행정기관
설립연도 : 1947년
설립목적 : 소방업무 관장
주요활동 : 화재 예방 .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
규모 : 전국 141개

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의미상 근접어인 소방관, 소방대, 소방대원 등의 개념을 차용할 수 있다.

2. 부정적 속성으로 정의

그러나 반대로 규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가진 성질에 반대되는 혹은 상관없는 부분들을 부정함으로써 개념을 드러낼 수 있다. 즉

수해 예방이 아닌, 전염병 예방이 아닌, 교통 사고 예방이 아닌.....기관
민간 기업체가 아닌, 개인 영리 단체가 아닌,.....기관
1946년이 아닌, 1948년이 아닌, 1949년이 아닌,.....해에 설립된 기관
..... 등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념 규정, 정의의 두 가지 방법은 언제나 규정하고자 하는 부분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것 외의 다른 부분을 상정한다. 그러한 여러 가지 개념의 경계들을 가르는 것이 정의의 방법이다. 어떤 개념을 규정은 그 개념의 범주를 설정한다는 의미이고 그것을 위해 다른 개념의 범주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위에서 불교에 대한 필자의 정의는 너무 단순하고 소박하다.

II. 불교란 무엇인가

- 불교의 개념을 정의하려고 한다. 개념의 정의는 다른 개념의 범주가 필요하다. 불교가 종교와 철학, 둘 중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보면,

1. 불교는 종교인가

1.1 불교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의 형식적 틀인 교단, 교리, 성직자 그리고 신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깨달음 혹은 깨침은 신비적이고 경험 초월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교가 종교가 될 수 없는 이유도 있다. 신神의 존재를 여타 종교들은 긍정하는데 반해 불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2. 불교는 철학인가

2.1 불교는 철학의 범주에도 들어간다.

'철학적으로 불교를 규정해 본다면 <심리학적 psychological>성향을 지닌 <변증법적 dialectical> <실용주의 pragmatism>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적 사유는 우리가 심리학이라 부르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바로 여기에 제논이나 큐의 니콜라스 Nicholas of Cues, 그리고 헤겔에서처럼 자기 모순적인 진술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의 개념이 얼굴을 비친다는 사실을 덧붙여 둔다.'
'성스런 가르침은 본래적으로 처방약이고 붓다는 의사와 같다, 의사로서 그는 여러 가지 병을 식별해내고 그 병의 원인과 치료재를 알고 그것으로 처방을 놓을 줄 알아야 한다.'

위와 같은 인용과 더불어 칼루파하나의 책 『불교 철학』을 보면, 앞서 서두의 연기법 혹은 인과율에 대한 부분에 관해 설명하기를 '붓다가 설명하는 인과적 통일성이나 인과율의 개념은 영원하다는 주장(永遠論 또는 常住論)과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주장(斷滅論)의 두 극단 사이의 황금의 중도로 알려져 왔다. 그것은 참으로 붓다가 발견했다고 선언한 세계에 대한 진리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교의 중심적 교의가 되었다. 그것은 불변하는 부동(不動)의 '자아'를 가정하는 실체론자들의 영원하다는 이론과, 연속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무실체론자들의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이론에 대한 붓다의 답변이었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붓다의 사상과 논리는 철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의 종교적 부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바는 상식적 감각과 인식의 영역을 벗어난 깨달음, 깨침이다. 때문에 불교를 철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도 하다.

3. 불교는 종교인가 철학인가

위와 같다면 불교는 종교와 철학 두 가지 범주에 모두 포함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 불교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자 하는데 사용한 '종교'와 '철학'의 개념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서양의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개념이다. 반면 불교는 서양이 아닌 인도에서 발생했고 20세기 이전까지 동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맥을 이어왔다. 불교는 종교나 철학이라는 범주에 한정시켜 나타나는 의미보다 불교의 '교敎'라는 글자처럼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가깝게 다가온다.

결국 서로 다른 개념적 기반을 가진 종교와 철학, 불교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연결시킨 것이 문제를 발생시켰다. **서양에서 보는 영성(spirituality)의 종교와, 이성(rationality)의 철학이, 양자가 분화되지 않는 불교를 각각의 범주에 포섭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떤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 필요한 다른 개념들이, 정의하고자 하는 개념과 모두 동일한 바탕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불교를 철학과 종교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듯이 그 무엇도 개념 정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불교를 정의할 때, 정의하고자 하는 개념을 되도록 다른 개념의 범주에 포함됨 없이 잘 드러낼 수 있는 특성에 집중할 수 있다.** 필자는 그것이 인과율에 관련한 부분이라 판단해서 서두에 올려보았다.

III. 불교철학의 방법

1. 불교철학이란 무엇인가

불교철학이란 '불교의 철학'이라기 보다 **'불교를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 해야겠다.** 하지만 불교의 특성상 불교를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불교는 철학이면서 영성과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2. 불교철학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불교는 곧 붓다이다'라는 명제로 불교를 표현한데도 큰 오류는 없다. 붓다에 의해서 성립되었고 붓다만이 불교의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철학적 이해로는 붓다가 될 수 없다. 붓다가 되지 못하면 불교의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붓다가 되기 위해서는 불교의 종교적 성격에서 언급했듯 불교는 신비적, 초월적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경험들조차 초월해야 한다. 불교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수양 혹은 수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불교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철학 외적인 부분이 필수적이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존재를 부정하지 못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명제에서 알 수 있듯 존재는 모든 경험의 제일 조건이다. 그래서 존재와 경험은 같지 않으면서도 불가분의 관계이다. 존재하는 것이 주체가 되어서 경험을 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주체를 부정한다. '나는 생각한다'의 '나'를 부정한다. 이것이 '무아無我'이다. 주체가 없이 경험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명제는 불교적으로 바꾸면 '생각하는 것은 나이다' 가 된다. 시간의 연속 안에서 '나의 경험'이 아니라 '경험'만이 연속될 뿐이다. 이것은 아주 큰 의미이다. 고정 불변의 실체를 가진 자아의 부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일반인들(衆生)은 자아를 고정 불변의 실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경험이 만들어낸 관념화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토끼의 뿔'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뿔이 달린 토끼를 상상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관념화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자아 관념은 허상일 뿐이다. 불교에서는 관념화된 자아를 깨버리는 것을 추구한다. 고정 불변의 자아를 부정한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앞서의 불교 철학과 불교 이해 문제와 맥을 같이한다.

일체개고一切皆苦, 세상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붓다 관점에서의 결론이다. 중생은 괴로움조차 망각하고 살아간다. 배움 후에 부족함을 안다(學然後 知不足)는 말처럼 깨달은 뒤에 진실된 괴로움과 깨달음을 알게된다. 즉 자아의 관념이 허구라는 것은 깨달은 후에만 알 수 있다. 무아를 추구하지만 추구하는 사람은 참된 무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더불어 자아에 얽매어 있다. 경험해 보지 못했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목표를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추구해야 한다.

목표의 달성을 위해 불교의 언어적 이해와 수행이 필요하다

불교의 언어적 이해란 이성의 합리와 논리를 통한 불교 경전의 철학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수행과 믿음은 언어적 이해를 초월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자 몸가짐, 마음가짐이다. 그렇다면 **불교의 온전한 철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언어적 이해와 수행을 분리할 수 없다.**

Ⅳ. 질문

1848년 9월 13일, 러트랜드 앤드 브릴턴 철도회사에서는 버몬트 주 캐진디쉬에 있는 어떤 골짜기의 바위 폭파공사를 하고 있었다. ~폭약이 터지면서 그 쇠막대는 대포알처럼 튀어나와 그의 왼쪽 눈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전두엽을 관통하여 정중선 근처 이마 바로 윗 부분을 뚫고 피범벅이 되어 공중으로 15m나 날아가 버렸다. ~그 사고 후 몇 주에 걸쳐 게이지는 꾸준히 회복하여, 마침내 67일이 되는 날에는 캐빈디쉬를 산책하고 물건도 사고 뉴 햄프셔 주에 있는 그의 어머니를 방문할 여행준비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할로우는 게이지의 변화를 일일이 기록하였다. ~ 10월 15일(32일째) - 지적 표현 능력이 떨어지고, 매우 변덕이 심하고 어린애 같다. 또한 고집이 세어, 그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제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의 친구와 동료들은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게이지가 아니야'라고 말하곤 하였다.~

리브리움은 긴장과 불안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부작용이 아주 적었다. 더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의 혼미나 지적 능력의 손상없이 진정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1960년 3월 리브리움은 항불안제로서 소개되었다. 3년 뒤에는 리브리움보다 다섯 배나 약효가 강력한 발륨이 개발되었다.

현대 의학에 의하면 기억, 학습 등의 능력을 포함한 인간 의식은 신체의 일부인 뇌에서 거의 전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아, 무아의 인식. 경험, 깨달음 등도 인간 뇌에서 담당하겠지요.

불교의 깨달음은 정신적 상태를 일컫습니다. 육체와 물질은 정신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위의 발췌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육체적 변화가 정신 상태의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붓다의 전두엽이 상처를 입으면 붓다는 중생이 되겠습니까. 혹은 신체에 부작용 없는, 선정과 삼매를 이뤄주는 건전한 마약이 있어 죽을 때까지 무리 없이 복용한다면 그게 깨달음일까요.